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0년 08월 제83호



발행처: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최행규

편집인: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국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외국어대학 233호

전 화: 031-201-325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35-173062 / 예금주: 차지원

Homepage: www.karll.or.kr

대표 이메일: karll21@hanmail.net

차례

권두언	3
회원논단	5
회원동정	7
신간안내	7
학회지 발간 안내	9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10
회비납부 현황	16

권두언

눈물에 대한 단상, 그리고 ‘가난 모시기’



김상현(성균관대학교)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가가 너무 한산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 웃음도, 눈물도, 반가운 소식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도 죽어갑니다. 정말이지 캠퍼스가 죽어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강의실 창가에 거미줄이 보이고, 도서관마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걸음걸이엔 지쳐 보이는 긴 그림자가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습니다. 깔깔거리며 웃던 학생들의 환한 웃음기 어린 얼굴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어느덧, 50줄을 넘어 중반으로 갑니다. 날 선 독설의 비평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었고, 이성만으로 가득한 머릿속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콧대는 덩달아 높아지기도 했고, 어쭙잡은 글발로 쓴 잡글을 가지고 치기 어린 소주병 영웅담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중산층 집 출신으로 더 높은 사다리를 기웃거리기도 하였고, 그러다가 덜 익은 공부에 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혹을 지났고, 이제는 삶을 조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공부도 조금씩 알아갑니다. 글이 무서워지니 철이 들었나 봅니다. 이제 겸손이 무엇인지, 눈물이 내겐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금전적으로 늘 어려웠던 유학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 제게 있었던 것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돈의 여유가 있었고, 낙방의 경험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고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삶을 돌이켜보니, 가장 닳고 싶은 사람이 시인이요, 가장 무서운 글도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의 삶, 일주일, 한 달을 곱씹어 보고 싶을 때, 시를 일부러 꺼냅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혼나고 싶어질 때,’ ‘꿈꾸는 사랑’이 깊어질 때 시처럼 제게 좋은 장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시어 하나에 피가 마른 적도 있었고, 한편을 다 읽고는 할 말을 잃어 먼 곳에 흐릿한 시선만 부유케 한 적도 많았습니다. 제 가슴을 친 시어는 항상 ‘눈물’과 ‘가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이었기에, 오늘도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원동력이기에 그렇습니다. 눈물과 가난은 저의 메말랐던 삶을 그나마 인간다운 길로 되돌려 준 감사한 반려어입니다.

제 삶의 결이 굳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고 싫습니다. 세월을 보내며 점차 그림자를 덮어두기 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숨기고 싶던 어두운 그림자에 빛이 나고, 마음에는 새살이 돋는 기분입니다. 그 비결은 눈물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빙해야 하는 덕목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혹에 잠시라도 마음이 빼앗기면 음란과 경박스러움, 치기 어린 자랑과 교만이 찾아듭니다. 진정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진 채 세상의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내리막 길을 걸어내려갈 때에야 비로소 타인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난과 친해집니다. 웃음만을, 한껏 고양된 의식만을 좇는다면 어찌 슬픔과 결핍을 알겠습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늘 갈급합니다. 하지만 넘치는 1차 사료와 문헌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머릿속에는 새 살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당뇨병 15년 차에 눈도 서서히 흐려지지만,

무엇을 새롭게 공부해야 할지, 무엇이 본질인지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복규 시인이 2018년에 낸 시집, 『슬픔이 많다』(지혜)에서 한 편을 골라내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웃음은 구겨질 수 있어도
눈물은 언제나 둥글다.
하늘로 올라간 웃음은
땅에 떨어져 썩을 수 있어도,
땅에 떨어진 눈물은
향기 나는 기도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눈물은 한 생애를
둥글게 하는 힘이 있다”

시집 말미에서 한 평론가는 시인의 시를 “빈(貧)의 철학”이라는 표현으로 담아냅니다. ‘가난 모시기’란 또 다른 담론으로 이복규 시인의 마음발을 가름합니다. “가난 모시기란 결핍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라 과잉된 기쁨기를 걷어내고 넘쳐나는 것을 동여냄으로써 ‘청빈’에 이르는 정신 수양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호젓함은 이 같은 빈(貧)의 철학에 의해 얻어지는 서정이다.”

내 삶의 기쁨기를 걷어 내고, 순수한 본질만 남게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때가 낀 사다리 다 걷어치우고, 오로지 공부에 필요한 것만을 남겨 두고 싶습니다.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앎을 동료와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인생의 반을 훌쩍 넘은 지금의 삶에서 더욱 낮아진 채 순수하게, 본질만이 남는 그런 공부만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학회다, 기타 모임이다 하여 너무 으리으리한 곳을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만찬장에 이르기까지. 낯선 곳을 어색하게 드나들며 제집처럼 편하다고 자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부도 그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는지 반성합니다.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새기려는 마음에서 평소 좋아하던 이상국 시인의 “국수를 먹고 싶다”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초, 한 지인 선생님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

니다. 수개월의 병고로 작고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마침 터진 코로나19로 장례식장이 폐쇄되고, 지인 선생님 스스로도 조문을 안 받으신다는 전언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 선생님은 부고를 학회에 알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된다는 판단에서였겠지요. 제게 없는 겸손이자 낮은 자세로 제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직접 찾아 뵙고 위로와 마음의 정을 나누었어야 하는 것을 저는 조문을 시도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상국 시인의 시로 그 선생님께 미안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푸성귀만 남지는 않았는지, 제 마음밭을 돌아보며 정말로 정말로 필요 없는 잡초들을 뽑아둡니다. 새 사랑과 인간다운 마음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회원논단

팬데믹 시대, 한국 대학의 미래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대학의 현실

꽤 오래전부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준비학원으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무교육의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는데 성공했다. 심각한 취업난은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을 황폐화하고,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은 전공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대학의 인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취업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취업이 교육의 지상과제가 되고, 부의 과시가 미덕이 되는 사회에서 물질숭배 만연으로 인한 인간성 타락을 걱정하는 것은 철딱서니 없는 이야기로 취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절대다수의 대학은 이른바 '대학서열'의 고착화로 인해 점점 더 경쟁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출신대학은 12년에 걸친 학업성취를 증명하는 성적 증명서로 변질했고, 통합모집, 복수전공, 전과의 활성화는 입시에서 전공보다 대학의 간판을 우선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극소수의 대학이 우수한 신입생과 기부금을 독점하는 가운데, 절대다수의 대학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또한,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대학, 특히 사립대의 재정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인상률마저도 고려하지 않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교육의 질적 하락을 외면하고 있다. 외국인학생 유치 확대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대학의 눈물겨운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첫째, 코로나19는 대학교육에서 원격강의를 활성화했다. 이제 원격강의의 능숙한 수행이 교원의 자질 중 하나가 되었고, 원격강의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평가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해졌다. 둘째, 물리적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도서관, 강의동, 기숙사 등이 사용되지 않거나 비능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의 상징처럼 보이던 물리적 인프라는 오히려 재정 낭비의 상징처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없는 캠퍼스에서 오히려 더 필요해진 것은 원격강의 시스템과 원격행정 시스템이다. 이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디지털 인프라가 교육환경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셋째, '교육의 상품화', '학생의 소비자화'가 이루어졌다. 이미 여러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정부의 등 떠밀기로 그야말로 마지못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등록금 환불'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학생을 소비자로 보아야만 가능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상품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교육이 상품이라면 '공정하게' 대학이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교육이 공공재라면 정부는 대학의 재정난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팬데믹 시대, 한국 대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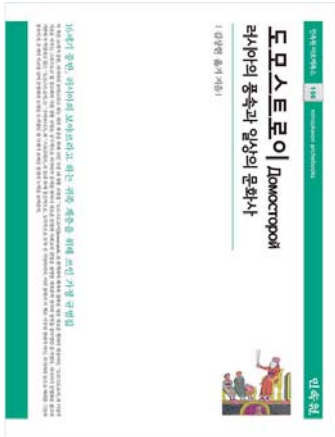
첫째, 섯다운에 대비하는 비상 행정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코로나19만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고 또 잠잠해질 수 있다. 이때마다 대학은 섯다운과 운영 재개를 수차례 반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 행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또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 둘째, 고도화된 원격강의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대학교육에서 원격강의의 전면 도입을 적어도 10년 이상 앞당겼다. 아직은 원격강의로 대체할 수 없는 수많은 강의가 존재하나,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 평가의 항목에도 원격강의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수와 학생에게 완벽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수백억을 들인 건물보다 수십억을 들인 디지털 인프라가 더 유용한 시대가 도래했다. 넷째, 교원의 역할이 연구보다 교육에서 더 제고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를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규정하면서, 강의의 질에 대한 관심이 비상하게 높아졌다. 학생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강의를 자신이 입시를 앞두고 수강했던 인터넷 강의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강의평가가 교원의 초빙, 재임용, 승진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1990년대 대학생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정부에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2010년대 대학생들은 '교육은 상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학에 등록금 환부를 요구했다. 이제 교육을 시장에 맡기든지, 정부가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순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등록금이 비싸도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줄을 서는 극소수 대학이 먼저 '상품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인상하고, 그 뒤를 따라 다른 대학들도 앞다투어 '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조정하면,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대학과 학생이 함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회원동정

- 정보라 회원님(연세대)이 8월 24일에 결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신간안내



도모스트로이 - 러시아의 풍속과 일상의 문화사

김상현(지은이)

민속원

2020년 7월 8일, 79,000원

ISBN: 9788928514601



수용소 - 교도관의 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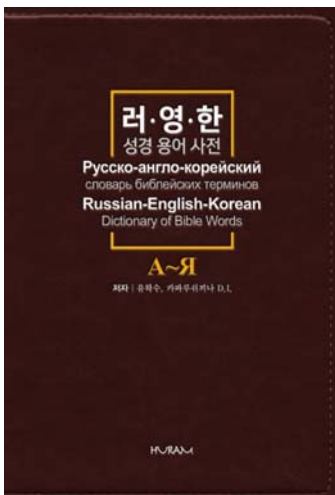
세르게이 도블라토프(지은이)

김현정(옮긴이)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2020년 5월 15일, 18,800원

ISBN : 9791128853364



러·영·한 성경 용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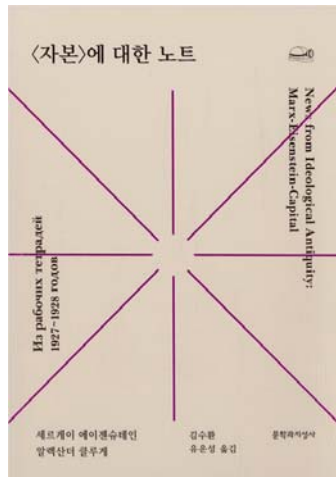
유학수, 카파루쉬키나 D. I.(지은이)

후람

2020년 3월 11일, 14,000원

ISBN : 9791186114360

신간안내



〈자본〉에 대한 노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알렉산더 클루게(지은이)
김수환, 유운성(옮긴이)
문학과지성사
2020년 3월 10일, 12,000원
ISBN : 9788932036021



POWER! 러시아어 번역의 실제 II

유학수(지은이)
선문대학교출판부
2020년 2월 20일, 20,000원
ISBN : 9788984238848



극동의 부상과 러시아의 미래

라승도, 이은경, 장세호(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9년 12월 24일, 30,000원
ISBN : 9791159016639

학회지 발간안내

-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각권 제1호는 3월 30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권 제1호는 2월 20일, 제2호는 5월 20일, 제3호는 8월 20일, 제4호는 11월 20일입니다.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를 통한 논문 투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JAMS에 회원 가입을 하여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료를 학회 계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면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논문게재료는 심사결과 게재 확정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전임으로, 연구재단 지원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논문투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시오.

- 1)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700자 이내)과 맨 뒤에 본문과 다른 언어로 된 요약문 첨부
- 2) 주제어를 한글과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여 첨부
- 3)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4) 논문의 영문제목 및 투고자의 영문 이름표기

*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작성요령

- 5.0. 논문제목: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를 저자명 중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으로 강조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챕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 (고딕체)

- 챕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 말’ 혹은 ‘나가는 말’ 등 다른 표현을 하지 않음

- 챕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 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 칸씩 띄움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1)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2) 루이스 멍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 3)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 4)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 5)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 6) 김종대, *op cit.*, p. 29.
- 7) *Ibid.*, p. 87.
- 8) David Dordwell, *op cit.*, p. 39.
- 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 10)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 1)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 2)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 3) D. N. Shali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4)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 5) 김학준, *op cit.*, p. 209.
- 6) *Ibid.*, p. 208.
- 7) Irina Reyfman, *op cit.*, p. 78.
- 8) *Ibid.*
- 9) D. N. Shalin (ed), *op cit.*, p. 100.
- 1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p. 쪽수.

- 1)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p. 25.
- 2) John Sulliva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pp. 56–58.

- 3) И. М. Денисова,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но 3 (2003), сс. 56–57.

[그 외 문헌]

- 1)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2)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3)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4)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5.8. 러시아 키릴문자의 영문자 표기: 권장하지는 않음

5.9. 참고문헌 목록 작성

각주를 지양하고 본문에(한노회, 1998: 116–117)로 표기할 경우나 각주로 한노회, 『한국노어노문학 30년 기념논문집』 (서울, 1998), pp. 116–117로 표기할 때나 공히 작성을 권장

6. 참고문헌 작성 요령: 순서는 국문, 논문, 영문 기타 외국어 순서

[단행본] 저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기재하지 않음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멈퍼드, 루이스.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Соколова, В. К.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Николаев, Д.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Dordwell, David.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Виноградова, Л. Н.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Reyfan, Irina.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halin, D. 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7. 제출형식

'아래아 한글'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8. 제출마감일: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계좌에 입금하고, 논문통과 후 논문게재료를 학회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10-235-173062 (예금주: 차지원)

※ 심사비, 게재료 납부계좌: 기업은행 010-4722-6239 (예금주: 한학회)

※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는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시고, 송금인과 입금내역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금인(연회비), 송금인(심사료), 송금인(게재료)]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판정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현황

▶ 평생회비 납부자

고 일, 곽태석, 강덕수, 강명수, 강홍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민아,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효, 김원한, 김유진,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정막래, 정보라, 정세진,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최행규,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강수경(3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2019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길윤미, 김나영, 김알레이샤, 남대현, 이남경, 이수진, 어건주, 이규영, 이다경, 이상철, 이성민, 이수현, 이훈석, 한현희, 허선화, 홍선희, 올라 무란

▶ 2020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김나영, 윤현숙, 이승억, 이훈석, 정연우, 정인선, 최윤희, 한현희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